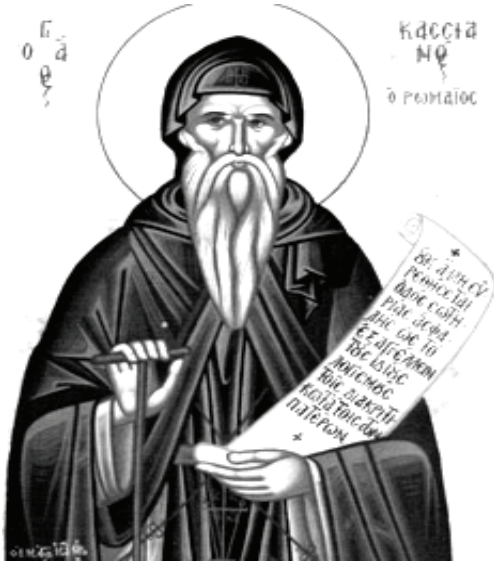




#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카시아노스 수사

## 심판 주일(금육 주일)

성 폴리카르포스 즘미르나의 주교순교자

제3조, 조과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3조 부활 찬양송 / 82. A 213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주교순교자 찬양송 / 84. B 263

· 성당 찬양송

· 심판 주일 시기송 / 220. B 271

· 사도경: I고린토 8, 8-9, 2 / 봉독서 432

· 복음경: 마태오 25, 31-46 / 136. B 9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카시아노스 수사

우리 교회에서 2월 29일 축일로 기념하는 성 카시아노스 수사(A.D. 360~435)의 삶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인은 청소년 시절과 성인이 되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문을 깊게 연구하면서 수도 많은 수도원들과 고행을 하는 수도사들을 찾아가면서 거룩한 영적 아버지들에 대해 듣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성인이 쓴 한 책에서 그리스도인, 특히 젊은이들에게 유익한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인은 “사탄은 어떤 다른 잘못이 사람을 파멸의 벼

랑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 아버지에게 권고의 말을 요청하지도 않고, 영적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수도사들과 사제들의 경험은 젊은이들의 삶에 있어서 안전한 인도자이고 귀중한 자산으로 삶의 뿌리고 기초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어떠한 인도자 없이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성인의 삶은 우리들에게 귀중한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120주년(2020. 2. 17.)

2020년 2월 17일은 우리 한국정교회에 있어서 특별한 날로서, 1900년 2월 17일 한국에서 첫 성찬예배가 이루어진 뒤로 120주년 되는 경축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교회의 생일로 하느님께서 합당하게 해주셔서 축일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 1) 우리나라에 정교회라는 큰 선물을 주신 데 대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바치고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를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 선택해주시고, 구원의 올바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당신의 신비의 성사들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당신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받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 2) 어려운 시절에 정교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일하신 러시아인, 그리스인 선교사들, 그리고 한국인 성직자들과 모든 신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 3) 우리들의 행동이 얼마나 정교인다운지,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에 비추임을 받았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요한 12:36)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입니

까? 나의 행동은 빛이 되는 행동입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잘못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복음사가는 우리들에게 “자기가 빛 속에서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요한I 2:9)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사랑에 대해 먼저 생각하면서 ‘교회의 빛의 자녀로’ 항상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의하며 삽시다. 그리고

#### 4) 결심의 날입니다.

㉠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 교회의 성장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올바르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집처럼 교회에 관심을 가진다면 교회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교회라는 큰 선물을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타내는 배라는 상징물을 많은 비잔틴 성화에서 보고 있습니다. 삶의 바다에서 교회인 배는 어떤 때는 풍랑 속을, 어떤 때는 잔잔한 수면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 배는

☞ 3면으로 계속

## 사랑은 정교 금욕주의의 진수(眞髓)이다

사랑이 없는 힘은 당신을 공격적으로 만든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당신을 오만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의무는 당신을 침울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책임은 당신을 인정사정없이 무자비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당신을 잔인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당신을 비판적으로 만든다.  
사랑이 없는 양육은 당신을 반항적으로 만든다.  
사랑이 없는 기지와 재치는 당신을 교활하고 음흉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친절은 당신을 위선적으로 만든다.  
사랑이 없는 질서는 당신을 까탈스럽고 괴팍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당신을 압제적으로 만든다.  
사랑이 없는 부(富)는 당신을 인색하고 옹졸하게 만든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당신을 광신자로 만든다.  
그러므로 사랑에 인색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자살할 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모든 일에 사랑을 보여주지 못할 때, 어떤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종착지인 하늘나라에 도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를 조종하는 키를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장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교회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

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안전하게 배 안에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도 배 안으로 인도하여 그들도 구원되어 하늘나라의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

✠ 암브로시오스 한국대주교

## 소 식

### 대교구

#### ■ **참회의 만과**

대사순절 전 주일인 다음 주일(3월 1일)엔 성찬예배 후 참회의 만과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대사순절을 시작하여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합시다.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에 문의해 주십시오.

#### ■ **이번 주간은 육류를 금합니다**

대사순절을 들어가기 전 주간인 이번 주간은 육류는 금하고, 생선, 달걀 및 유제품은 허용됩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장년회 봄 단합대회**

오늘 3월 8일 주일 성찬예배와 사랑의 오찬 후 한양도성 성곽길(3코스, 남산구간) 트레킹을 할 것입니다. 둘레길 트레킹 후에는 기념 촬영 및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참가비는 10,000원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 ■ **주일학교 진급식**

다음 주(3월 1일) 성찬예배 후 새 학년을 맞이하는 주일학교 진급식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유익한 새 학년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